



미 증시, EU 물가지표 둔화,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31 일(월) 미국 증시는 유로존 물가지표 둔화, 빅테크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유가 80 달러대 돌파, 연준위원 발언에 상단은 제한되며 소폭 상승 마감(다우 +0.28%, S&P500 +0.15%, 나스닥 +0.21%) 업종별로 에너지(+2%), 부동산(+0.7%), 경기소비재(+0.6%) 강세, 헬스케어(-0.8%), 필수소비재(-0.5%), 통신(0%)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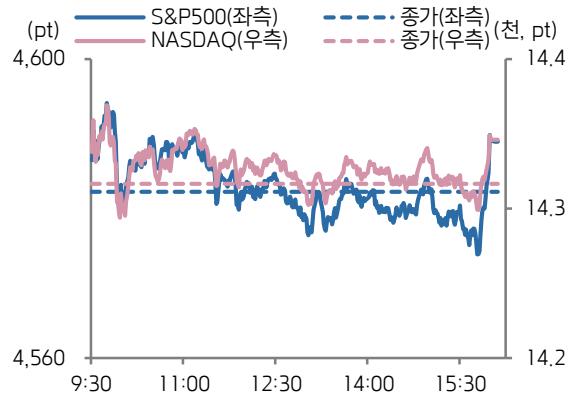
오스tan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9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일 것임을 시사. 경기에 대해서는 큰 경기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으로 정의하는, 이상적인 경로(golden path)에 있다고 평가. 이번 경기 사이클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가능성 있다고 언급.

유로존 7 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 5.3%(예상 5.3%, 전월 5.5%), 근원물가는 YOY 5.5%(예상 5.4%, 전월 5.5%) 기록하며 전월대비 소폭 둔화. 식품, 주류 및 담배 부문이 YOY 10.8%, 서비스 5.6%, 산업재 5.0% 상승한 반면 에너지 부문이 6.1% 하락한 점은 긍정적.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은 QOQ 0.6%(예상 0.5%, 1분기 0.0%) 기록. 예상치 대비 상승했으나 독일의 2분기 GDP 증가율이 QOQ 0%(1분기 -0.1%)에 그치고 이탈리아는 -0.3%(1분기 0.6%) 역성장. 또한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성장하긴 했지만 일회성 순수출 증가에 기인했다는 점 등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 그러나 지표 부진 이후 ECB 의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 유입되며 유럽 증시는 강세.

중국 7 월 제조업 PMI 는 49.3(예상 48.9, 전월 49.0) 기록하며 예상치 소폭 상회했으나 4 개월 연속 50 하회. 신규주문은 전월 48.6에서 49.5, 생산 50.3에서 50.2 기록. 7 월 비제조업 PMI 는 51.5(예상 53.0, 전월 53.2) 기록했으나 전월대비 하락하며 작년 12 월(41.6) 이후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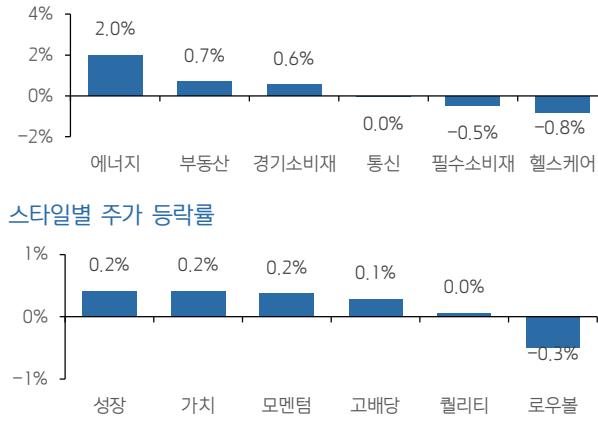
미국 정부는 비상 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예산 사용 권한으로 '대만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 휴대용방공미사일(MAN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미사일 등 3 억 4500 만달러(약 4400 억원) 규모 군 장비와 용역, 훈련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지원. 이에 중국은 "대만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32.58	+0.93%	USD/KRW	1,274.36	-0.21%
코스피 200	345.62	+0.46%	달러 지수	101.88	+0.25%
코스닥	935.97	+2.43%	EUR/USD	1.10	+0.01%
코스닥 150	1,551.24	+3.43%	USD/CNH	7.15	+0.01%
S&P500	4,588.96	+0.15%	USD/JPY	142.27	-0.01%
NASDAQ	14,346.02	+0.21%	채권시장		
다우	35,559.53	+0.28%	국고채 3년	3.682	+4.9bp
VIX	13.63	+2.25%	국고채 10년	3.765	+3.4bp
러셀 2000	2,003.18	+1.09%	미국 국채 2년	4.877	+0.2bp
필라. 반도체	3,861.63	+0.26%	미국 국채 10년	3.959	+0.8bp
다우 운송	16,616.42	-0.47%	미국 국채 30년	4.010	-0.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71.31	+0.11%	WTI	81.8	+1.51%
MSCI 전세계 지수	707.11	+0.23%	브렌트유	85.56	+0.67%
MSCI DM 지수	3,064.30	+0.21%	금	2009.2	+0.47%
MSCI EM 지수	1,046.91	+0.36%	은	24.97	+1.95%
MSCI 한국 ETF	67.57	+0.12%	구리	400.8	+2.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0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보합.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76.3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RBA 회의, 중국 지표 등 대외 이벤트가 장중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의 7 월 전체 수출 및 업종 별 수출 실적 발표 이후 관련주 주가 변화
3. 2 차전지주들의 수급 변동성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 월 FOMC 이후에도 인플레 둔화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2 분기 실적시즌도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7 월 증시 강세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7 월 등락률 코스피 +2.7%, 코스닥 +7.8%/ 다우 +3.3%, S&P500 +3.1%, 나스닥 +4.0%).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신규 악재가 될만한 재료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증시를 하방 쪽으로 불만한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은 맞음. 하지만 그와 동시에 S&P500 지수와 나스닥이 5 개월 연속 상승세를 경신하면서 단기 레벨 부담도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증시 상단이 추가로 열릴지를 둘러싼 시장의 고민을 만들어내고 있음. 또 전일 연준에서 공개한 2 분기 대출 서베이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했고, 기업들의 대출 수요 역시 둔화됐다는 점도 부담. 이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 편디멘털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할 것.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상으로 미국의 골디락스(양호한 성장을 + 물가 하락), 실적 상으로는 미국이 2 분기 실적 저점, 한국이 3 분기 저점”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은 것으로 보임. 해당 시나리오야 말로 빠른 지수 레벨업이 가능한 만큼, 2 분기 실적 시즌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 ISM PMI, 고용,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 발표 이후 경기 전망 변화가 중요해졌다고 판단. 8 월 말 잭슨홀 미팅 혹은 좀 더 근시안적으로 8 월 10 일 미국 CPI 이벤트 전까지는 연준 발 증시 민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그전까지는 경기와 실적에 민감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PCE 물가 둔화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속 지난주 극심한 변동성을 연출했던 2 차전지주들의 동반 강세 효과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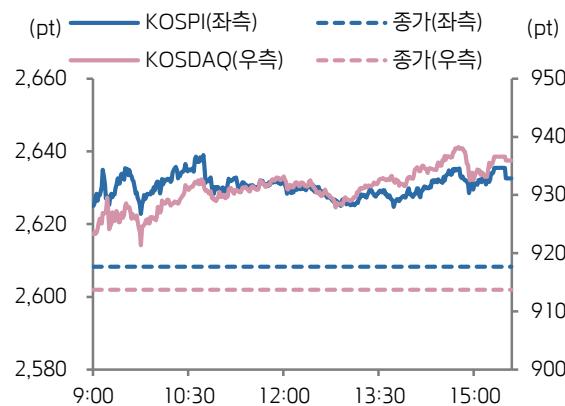
금일에는 양호한 미국 증시 결과에도,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표 등 대외 이벤트 속 2 차전지주들의 수급 변화, 7 월 수출 부진 우려(컨센 -14.2% YoY vs 6 월 -6.0%) 등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7 월 중 FOMO 현상에 가까운 2 차전지주 수급 쏠림 현상 및 그로 인한 주가 급등은 여러 투자 채널을 통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면서, 개인 중심의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 이는 예탁금과 레버리지 베팅 자금 유출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일단 고객 예탁금은 6 월말 51.6 조원에서 7 월말 55.7 조원으로 약 4 조원 증가하면서 시장에 신규 개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 또 미수금 잔고(6 월말 4,830억원 → 7 월말 7,730억원)도 신용융자잔고(6 월말 19.4조원 → 7 월말 19.9조원)도 동반 증가하는 등 현금 이외에 신용을 써서 증시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 중 2 차전지주(코스피와 코스닥 내 관련주 합산, 다수의 FnGuide 2 차전지 관련 지수내 편입 종목) 신용잔고 금액은 7 월말 3.5 조원으로 지난 5 월 에코프로의 MSCI 편입 실패 이후로 6 월 초까지 2.9 조원대로 내려왔었음. 하지만 테슬라의 인도량 호조 등 업황 호재성 재료가 출현한 6 월 말을 기점으로 재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상기 언급한 신규 자금들은 2 차전지 관련주 위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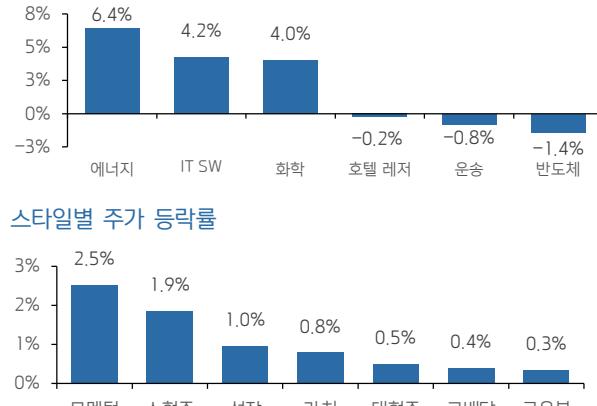
직관적으로 그 성격이 어떻든 간에 새로운 자금이 증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 현상은 지난주처럼 심리적인 요인이나 단순 수급 상 포지션 청산 유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 상존. 공매도 잔고 역시 6 월 말에서 5.9 조원에서 7 월 25 일 7.6 조원까지 급증했다가 현재 6.0 조원대로 재차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 시 추후 잠재적인 신용 불안 혹은 주가 변동성이 수시로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2 차전지주 매매에 나서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